

전북도 ‘중앙당 약진’ 발판 2027 예산전 본격

지역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배출 ‘전례 없는 기회’
3954억 규모 신규사업 308건 발굴
‘플랜 B’ 카드…중앙부처 설득 총력

전북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중앙당 지도부에 대거 진입함에 따라 플랜 B를 가동한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안 과제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3,954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308건을 발굴했다. 도는 정치권과의 전략적 공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선다.

도는 이날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회의는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위한 2027년 신규사업 발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재정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신규 사업을 위한 재량지출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2027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5.0% 수준으로 전년 대비 3.1%p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과 치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9월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앙부처 정책 방향에 맞춘 사업 구상에 착수했으며 이번에 확정된 신규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분야별로 보면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전북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첨단 기술 거점 구축에 집중했다.

주요 사업으로 ▲이차전지 전주기 AI 기반 분석센터 ▲육해공 무인이동체 종합 실증 인프라 ▲지역거점 창업도시 조성 ▲전북 지역혁신성장펀드 조성 ▲전주 탄소산업 제조 AX 실증·확산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됐다.



2027년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

13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중간 보고회에 김관영 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또 농생명 분야는 ▲맞춤형 메디컬푸드 개발 및 상용화 ▲푸드테크 대체식품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동물웰스케어 바이오뱅크 구축 ▲새만금 K-푸드 수출 허브단지 구축 등을 추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새만금 및 SOC 분야는 전북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는 사업들로 구성됐다. 사업별로는 ▲새만금 하수통합방류관로 구축사업 ▲전라선 고속화 ▲백제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홍보해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국립 판소리 산업 복합단지 조성 ▲고도역사도시 조성사업 ▲국립현대미술관 전북관 복합단지 조성 등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했다.

안전환경복지 분야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여기에는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신규 건립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건립 ▲농생명 특화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건립 ▲한의 임상교육센터 설립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는 발굴한 사업들이 중앙부처의 중기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1월부

터 중앙부처 방문 설명에 집중하는 한편, 부처별 예산 지출한도액이 배정되는 3월 전까지 내실 있는 신규사업 발굴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들은 부처안 편성 전까지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전북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하는 등 선제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배출한 데 이어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원내대표로,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며 전북 출신 인사들이 중앙당 핵심 의사결정 구조에 진입한 것은 전례 없는 기회로 평가된다. 도는 이를 국정 설득력 강화의 계기로 삼고,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현안 과제 해결 및 국비 확보의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에 대해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듯 올해도 전 직원이 똘똘 뭉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며 “발굴된 사업들이 전북의 미래를 바꾸고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밝혔다.

/장정철 기자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김 의원 “공소시효 지나·재심 청구”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각종 의혹에서 탈당을 거부한 김병기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밤 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말 원내대표 직에서 물러났으며, 당내에서 제기된 탈당 요구에 대해서도 제명 당할지언정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이에 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 의원으로부터 5시간 가량의 소명을 들은 뒤에 밤 늦게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 구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 ▲차남 송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

道, 아이돌봄·한부모 지원 확대 부모 체감 양육 부담 완화

돌봄지원 기준 중위소득·시간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김제·순창 신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역 강화

전북도는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돌봄인프라 확충 등 관련 제도를 확대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은 양육 과정에서 부모가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실질적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넓히고 공동육아 및 야간 돌봄 인프라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200%에서 최대 250%까지 확대됐으며 한부모·조손가정 등 취약 가구의 지원 시간은 기존 연 960시간에서 연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기존 다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도 정부지원 보조율 5%를 추가 적용해 도내 양육 가정의 부담을 줄인다. 심야에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를 위해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도 본격 시행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김제시와 순창군에 신규 설치해 도내 총 29개소로 늘어

나며, 특히 김제와 무주 지역은 평일 야간 22시까지, 주말은 17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

또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넓히고 추가 아동양육비를 비롯한 시설 입소자 생활보조금, 학용품비도 함께 올린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활보조금은 월 10만 원으로 상향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저출생에 대응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시범 추진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2026년부터 시군 확대사업으로 전환해 지역별 지원을 강화한다.

장려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에 대해 적용하며 최대 3개월 간 월 30만 원씩(최대 90만 원) 지급한다. 올해는 총 300명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남성 육아휴직자(300명 예정)로,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역시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자여야 한다.

/장정철 기자

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이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관위 간사로 서 묵인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의혹사건은 3년전 사건으로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심판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제명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항공의 숙박권과 쿠팡관련 논란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심판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다.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고 반발했다.

/서율=김영목기자



전북, 비수도권 첫 벤처펀드 1조…투자 생태계 ‘활짝’

아이에스피·에너지버 등
도 펀드 비중물 투자유치·고용성과
수도권 기업 판세 익산 본사 이전
페스카로, 코스닥 상장 결실

전북도가 비수도권 최초로 누적 벤처 펀드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전북의 펀드가 지역 기업에는 ‘성장의 사다리’로, 수도권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며 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 창업의 한 계를 넘어 기술력에 날개를 단 대표 사례로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기업 ㈜아이에스피가 꼽힌다.

전북에서 태동해 도 펀드의 지원으로 도약한 이 기업은 20억 원의 도 펀드를 포함해 총 55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현재 확보한 R&D 자금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정권 대표는 “지역 기업으로서 가장 큰 고민은 기술력을 뒷받침할 대규모 자금 확보였다”라며 “전북 펀드의 투자는 단순한 자금 수혈을 넘어 우리 기술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어 후속 투자 유치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 성장이 지역의 기회로 이어지며 청년의 꿈을 담은 이야기도 있다.

이차전지 전문 기업 에너지버배터리솔루션㈜은 도 펀드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모델이다. 15억 원의 도 펀드 투자를 받아 총 4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이 기업은 2022년 완주군에 공장을 설립한 후 전체 직원 70명 중 50여 명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며 지역 경제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신상기 대표는 “전북의 선제적인 투자가 있었기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할 수 있었고, 이는 곧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며 “12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 유치를 통해 전북 이차전지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전했다.

수도권 기업도 전북으로 향하고 있다. 그린바이오 분야의 ㈜팡세는 전북 펀드를 마중물 삼아 익산에 동지를 틀고 글로벌 도약을 준비 중이다. 본사와 공장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전격 이전한 팡세는 15억 원의 도 펀드를 포함해 총 8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완료하며 양



전북도가 비수도권 최초 누적 벤처펀드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 통합 컨소시엄 라운드’

산 공장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성준 대표는 “전북은 펀드 지원뿐만 아니라 식품 클러스터 등 산업 인프라가 매우 탄탄하다”며 “전북 펀드 투자 결정이 본사 이전을 확정 짓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코스닥까지, 연구소 기업의 비상도 펼쳐졌다.

전북 펀드 투자의 최고 결실은 기업공개(IPO)다. 군산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차량 보안 솔루션 기업 ㈜페스카로는 10억 원의 도 펀드 투자를 시작으로 총

<사진=전북도>

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난 12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며 전북 투자 생태계의 지력을 증명했다. 페스카로는 타타대우, 전북자치도 등과 협업하며 지역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홍석민 대표는 “전북의 연구소에서 시작한 혁신 기술이 코스닥 상장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제어기 부문 생산 라인 등 전북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지역 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용인 반도체 리스크, 지방 분산 배치가 해법”

안위원 “용인 사업 90% 계획 단계
입지 재배치 가능한 시점”
“전북, 대안 제시하면 선택지 될 것”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 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를 점검하고, 전북과 새만금에 반도체 및 첨단 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용인 반도체 문제가 특정 지역의 주장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를 공식화한 것으로 전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중앙당 차원의 논의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당 특별위원회는 핵심 과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해법 마련 ▲전북·새만금에 반도체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리스크 점검과 전북 첨단산업 유치는 연결된 사안이지만, 각각 독립적인 논리와 명분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전북이 용인 반도체 리스크의 대안 지역이 되더라도, 첨단산업 유치는 전북의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와 관련해 안 의원은 “국회입법조



안호영 위원장은 13일 전북도의회에서 “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 전력·용수를 점검하고 전북·새만금에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치를 비롯한 다수 전문가들이 이미 구조적 한계를 지적해왔다”며 “지방 분산 배치 외에는 근본적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사업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SK의 팹 1기를 제외하면 전체 사업의 90% 이상이 여전히 계획 단계로, 입지 재배치는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상황을 언급한 뒤에 “삼성도 시장 상황상 조속한 양산 체제 가동이 필요하지만, 용인에서는 전력과 용수 문제로 일정이 불투명하다”며 “전북이 3~4년 내 공장 가동이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입지 조정이 검토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 위원장은 “전력·용수 공급, 즉시 착공 가능한 부지, 세제·행정 지원, 반도체 생태계 조성, 노동자 주거와 정주 환경을 포함한 종합 패키지를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는 이미 국가적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이자, 에너지를 다루는 상임위원으로서 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은 이 위기를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기회로 바꿀 출발선에서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와 발맞춰, 전북이 국가 전략산업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환경안전 지원 전면 확대

전북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4억 원을 투입해 환경안전(ESH)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산업현장의 화학사고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도내에서는 총 34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도는 관련 예산을 전년 1억6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리고, 컨설팅·시설개선·교육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사)전북산학융합원과 함께 산업단지 내 취급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과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신규 대상 ‘진단 컨설팅’과 기존 참여기업 ‘모니터링 컨설팅’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시설개선은 배관·저장탱크 교체, 누출 감지·경보 시스템, 유출 방지 설비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세기업은 전액 지원하고 중기업 10%, 중견기업 20%를 자부담한다.

교육은 권역별 교육장을 활용해 법정 안전교육을 대체 운영하며, 약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컨설팅 30개소, 시설개선 10개소, 인력양성 30명을 지원했으며, 재참여 희망률은 100%로 나타났다.

/김은지 기자

한병도 원내대표단 인선 마무리…대변인단 유임

15일 본회의서 2차 특검처리
비서실장 이기현 의원 임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원내대표단 인선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이기현 의원을 임명하고, 원내 대변인에는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을 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일 한 원내대표는 진명 천준호 의원을 신임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임명하고, 원내정책수석에 김한규 의원, 원내소통수석에는 전용기 의원을 임명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서울 강북갑 지역구의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앞서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진명이다.

김한기 원내정책수석은 제주시를



한병도 원내대표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은 경기 화성시정을 재선으로,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 원내대표는 김기표·김문수·김준혁·박용갑·박홍배·오세희·이훈기·전진숙·조인철 의원은 유임하고, 김남근·김동아·김성화·박민규·안태준·이상식·이용우·이정현·이주희 의원은 새로 임명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제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개혁의지를 확실히 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는 13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전북지역 농어업 대전환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전북서 ‘농정 대전환’ 시동…농특위 순회 첫 설명회

청년농창업 등 전복 6대 전략 발표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현장 방문

전북자치도가 13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농어업,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전북 지역 농어업 대전환 설명회를 열었다.

전북은 농특위가 9개 광역도를 순회하며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의 올해 첫 방문지다. 이날 행사에는 김호 농특위 위원장과 김중훈 경제부지사, 임승식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이훈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장 등 도내 농업인 120여 명이 자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12월 1일 민간위원 24명이 새롭게 위촉된 농특위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 강화의 농정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등 정부의 농정 방향을 제시하며, 2026년이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대전환을 실행에 옮기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첫 순회지인 전북에서는 농생명산업수도 육성 성과 및 전략으로 ▲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 ▲수요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위기대응 지속가능 농업구조 전환 ▲안심하고 농업하는 경영안전 강화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농촌 조성 등 6대 전략의 추진 성과와 2026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러한 질의응답에서는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강화, 지역단위 공동영농 조직 및 인력은행 확대, 시설원에 전환을 위한 에너지 지원정책,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농어촌기본소득의 성공적 추진 방안 등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건의가 쏟아지며 토론이 펼쳐졌다.

김중훈 도 경제부지사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정책을 확장·체계화해 성장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JBT 전북타임스 연중 캠페인

화재예방 수칙

1. 태진 불씨 확인 철저

2. 담배꽂초 무단투기 금지

3. 음식물 조리 중 자리 지키기

4. 초 사용시 주변 가연물 제거

전북 기업이 바라본 경영·경제전망 조사

기업 67.2% “안정 경영” 환율 안정·투자·소비 활성화 정책 필요

고환율과 대내외 불확실성 장기화로 전북지역 기업들은 2026년에도 경기 회복보다는 정세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가 전북지역 제조업체 12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 기업이 바라본 2026년 경영·경제전망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0.2%가 2026년 한국경제 전망을 ‘2025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경기 악화’를 전망한 응답은 31.3%로,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

(28.6%)을 웃돌아 전반적으로 회복 기대보다는 보수적인 관망 기조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0원대 후반까지 상승하며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환율은 기업 경영 전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이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내 조달·국내 판매 중심으로 영향이 미미하다’는 응답이 42.3%로 가장 많았는데, 지역 기업들은 원재료 국내 조달 비중이 높고 판매 역시 내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환율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6년 경영계획의 핵심 기조로는 ‘안

정(유지) 경영’이 6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확장(성장) 경영’은 21.8%, ‘축소 경영’은 10.9%로 나타나 대다수 기업이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보수적인 경영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2026년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주요 긍정 요인으로 ‘금리 인하 및 금융 여건 완화’(20.7%)와 ‘국내 기업 투자 확대’(17.1%)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유가·원자재 가격 변동성’(22.6%), ‘고환율 및 환율 변동성 확대’(21.3%), ‘글로벌 경기 둔화’(17.0%)는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 하방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같은 인식은 정부 정책에 대한 필요성 인식으로도 이어졌다. 기업들은 2026년 경제 활성화와 실적 개선을 위

해 ‘국내 투자 촉진’(24.4%)과 ‘소비 활성화’(21.7%), ‘환율 안정화 정책’(17.6%)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보다는 투자 환경 개선과 거시경제 안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 “고환율과 비용 부담, 대외 불확실성 장기화로 지역 기업들은 2026년을 반등보다는 정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환율 안정과 금융 여건 개선, 투자·소비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 기상지청, 한파 피해 예방 캠페인

시장상인대상 행동요령 홍보

전주 기상지청(지청장 신언성)은 13일 완주군 재난안전과, 완주군지 역자율방재단과 함께 완주군 삼례 시장에서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전 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파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시장 상인들은 겨울철 찬 바람에 지속적 으로 노출돼 건강 악화와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관계기관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한파 대응 정보를 전달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관계기관과 지

역자율방재단 등 30여명이 참여했으며, 방한용품 나눔 행사와 함께 한 파 영향예보 확인 방법을 안내하고,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했다. 신언성 전주 기상지청장은 “겨울철 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며 “이번 캠페인 이 상인들이 한파 영향예보를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 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도민 이 체감할 수 있는 기상정보 제공과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공단, 전주사무소 설치 자산운용사와 첫 간담회

김성주 이사장, 자산운용 생태계 조성 방안 마련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13일 전주에 사무소를 설치한 자산운용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성주 이사장 취임 후 전주에 동지를 틈 국내외 자산운용사대 표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전주사무소를 운영하며 느낀 애로사항을 얘기하며 지역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주에 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국민연금과의 소통이 훨씬

더 원활해졌다”라며, “더 많은 자산운용사가 지역에서 활동하려면 교통·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위탁운용사 선정에서 지역 가점을 강화하는 등 지자체와 공단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지역에 뿌리내리려면 금융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국내 외 운용사들이 국민연금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큰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며 “전주가 자산운 용 중심 금융도시로 반드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농진청, 우량 종자·기계화 적성 우수 종자 현장 신속 보급

식량작물 신품종 기관에 신속 보급·품종 대체 지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해마다 새로 육성한 우량종자를 지방 농촌진흥기 관을 통해 신속히 보급해 외래 품종 및 오래된 품종 대체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122개 시군농업 기술센터를 통해 12작물 112품종 31,138kg(재배면적 473ha)을 현장에 보급한 바 있다. 그동안 우수한 벼 신품종을 보급해 외래 벼 재배면적을 2020년 7.9%(5만 7000ha)에서 2025년 3.5%(2만 7000ha)로 줄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지역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 개발 프로그램(SPP)’으로 탄생한 ‘한가득’은 경기 김포 지역에서 기존 재배하던 외래 벼 대체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김포시와 함께 ‘한가득’을 지역 대표 품종으로 선정해 2023

년 0.6헥타르에서 2025년에는 165헥타르로 재배면적을 확대했다. 2029년까지 1,500헥타르로 늘려 외래 벼를 90% 이상 대체할 계획이다. 발작물 가운데서는 쓰러짐에 강하고 꼬투리 달리는 높이(착협고)가 높아 기계화 재배에 알맞은 ‘평안공’과 수량성이 높고 곰팡이병에 강하며 콤바인 수확이 가능한 수수 품종 ‘누리찰’을 보급해 생산성과 농가 소득 향상에 힘썼다. 또 갈변 억제 가공용 감자 ‘꿀든불’과 재배 안정성이 높은 호박고구마 ‘호품미’ 등 수량성과 품질이 우수한 신품종들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했다. 올래는 벼(밤쌀용, 특수미 등)와 발작물 콩, 고구마, 감자 등 40여 품종을 분양한다. 보급 품종과 수량은 1월 19일부터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www.nics.go.kr)에 예시할 예정이다. 지방 농촌진흥기관은 1월 30일까지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 ‘신품종 종자 분양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해마다 새로 육성한 우량종자를 지방 농촌진흥기관을 통해 신속히 보급해 외래 품종 및 오래된 품종 대체를 지원하고 있다.

신규 종자는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체계적인 품종 관리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지방 농촌진흥기관(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을 통해서만 분양 신청받는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

과 황택성 과장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감축 등 국내 농업 환경에 적합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신품종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환경과 식량안보 체계를 지키는 농업기술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 ‘윤리경영 실천’ 결의

실천 결의문 작성·동참 결의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국장 김성수)은 지난 9일 전북검사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심천심 운동’을 통한 행 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을 작성하고,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동심협력의 자세로 농정대전에 적극 동참하고 △범범 과 제규정 준수로 범농협 공신력에 제 고에 기여하며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유류통사업 혁신과 역량

집중으로 농협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전북검사국은 윤리경영을 위해 매월 행동강령 준수 캠페인 활동 및 임 직원 준법 자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전북검사국 김성수 국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전북검사국 직원이 앞장서겠 으며, “농·축협 종합감사시에도 윤리경 영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도 해 농업인과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 는 농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전북TP, 이차전지 관련 기업 장비활용 수요조사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부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대상 장비활용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기반구축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재)전북테크노파크를 주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군산대학교가 참여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1121) 전용공간 및 실시간 고도분석 장비 20종을 구축해 관련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차전지 핵심소재 고도화를 위한 실시간 고도분석기술 인프라 조성 및 고도분석 프로세스·성능평가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전북테크노파크는 향후 구축 예정인 고도분석 장비의 산업 활용도를 높이고, 실제 기업수요를 반영한 장비 도입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차전지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장비활용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이차전지 소재·부품·셀·모듈·팩 분야를 포함한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13일(화)부터 1월 23일(금)까지 약 2주간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고도분석 장비 도입의 타당성 확보와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본 조사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추진되며,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기업 대상 안내 메일 발송, 현장 방문을 통한 설명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차전지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리드해 나갈 계획”이라며 “활용도 높은 장비구축을 위해 도내·외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은행 ‘26년 달리란 말이야 특판 적금’ 출시

우대금리 포함 최고 연 3.10% 금리 제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이 새해를 맞아 이벤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26년 달리란 말이야 특판 적금’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3월 31일까지 판매하는 ‘26년 달리란 말이야 특판적금’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6개월, 12개월, 24개월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 금리는 6개월 연 2.60%, 12개월 연 2.80%, 24개월 연 2.70%이며, 12개월 가입 시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3.10%의 금리를 제공한다. 최고 연 0.30% 제공되는 우대금리

는 전북은행 입·출금계좌에서 해당 적금으로 계약기간의 1/2이상 자금이 체 입금 시 연 0.20%, 특판 적금 가입 시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면 우대금리 연 0.10%가 제공된다. 가입대상은 개인, 개인사업자 및 일반 법인이며, 가입 금액은 계약당 월 1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가입이 가능하다. 총 판매한도는 10,000좌로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봄은 말의 해인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고객들의 모든 일이 역동적으로 잘 풀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특판 적금을 출시했다”며 “새해에도 전북은행은 고객의 일상에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은 금융 서비스와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새해를 맞아 이벤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26년 달리란 말이야 특판 적금’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혜민 기자

AI 디지털 리터러시 ‘학교 교육과정’ 연계

전북교육청, AI 디지털 ‘윤리·판단’ 중심 교육 전환

전북교육청은 2026년도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연계해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올바른 AI 이해와 책임감 있는 활용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디지털 기기

를 활용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말한다.

지난해 전북교육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AI 디지털 윤리 학생교육자료 개발 △디지털 디톡스 캠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 △영화를 통해 바라본 AI와 디지털 세상 등 다양한 형태의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운영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AI와 디지털 기술 사용에서 부분별 사용을 벗어나 스스로 점검하고 조절하는 인식 변화를 보였다.

더불어 교사와 학부모들은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따른 공감의 기회를 가졌다.

2026년에는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방향이 ‘기술 활용 중심 교육’에서 ‘윤리·판단 역량 중심 교육’으로 전환한다. 따라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한 △생성형 AI 활용 △가짜뉴스·딥페이크 대응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등 실질적 디지털 환경 교육을 진행한다.

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과 지난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디지털 디톡스 캠프를 지속 운영해 학생들

의 건강한 디지털 생활 습관 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학부모 대상 AI 디지털 윤리 교육을 확대해 가정에서도 일관된 교육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료 고도화와 현장 활용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업에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를 추가 개발 및 보급하고 교사가 부담 없이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 사례 공유 등 지원을 병행해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 정착을 도모한다.

/김영태 기자

2026학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모집

2월 13일까지 원서접수

전북지역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75명, 방송통신고등학교 94명 등 총 169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편입생은 방송통신중학교 20명, 방송통신고등학교 21명을 모집한다.

전주덕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 지원 자격은 △초등학교 졸업 및 동등 학력 소지자로 의무교육을 면제받은 만 19세 이상인 자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등이다.

원서접수는 내달 13일까지이며, 전주덕일중 4층 교무실로 신분증을 지

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덕일중 교무실 또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와 전주여자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역시 내달 13일까지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자격은 △중학교 졸업자 및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 △의무교육 수료 후 고등학교 학령기가 경과한 자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고부설방송통신고 교무실 또는 행정실, 전주여고부설 방송통신고 교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방송통신중·고 운영센터 누리집에서도 모집 요강과 지원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정혜민 기자



전북현대모터스FC N팀, 신인선수 12명 영입

전북현대모터스FC(단장 이도현)가 신인 선수 12명을 영입하며 미래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

전북현대의 유스 시스템인 '전북현대 U18전주영생고' 출신들을 주축으로, 대학 무대와 고교 축구에서 두각을 나타낸 최고의 유망주들로 구성됐다. 전북현대는 2025시즌 준프로 신분으로 가능성을 보여준 이한결(GK), 한석진(RFW), 김수형(CB)과 정식 프로 계약을 체결했다.

동갑내기 유스 출신 박현민(MF)도 잠재력을 인정받아 프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우선지명계약으로는 전주대학교 문준혁(MF)도 이번 시즌을 앞두고 프로에 합류했다.

대학 축구의 강자로 군림한 3명의 선수도 전북현대에 동지를 틀었다.

곽희벽(RB, 단국대), 정대영(GK, 경민대), 우현수(DM, 광운대)는 대학 시절 팀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즉시 전력감에 준하는 기량을 갖췄다는 평가다.

고교 무대에서 최고의 유망주로 손꼽히는 4명도 합류했다.

고교 축구의 신동 강호 진위FC 출신의 김주형(CB)과 이건희(CM)를 비롯해, 신태인FC의 공격수 김두현(FW), 전통의 명문 부평고의 안태훈(LWF)이 전북현대 N팀의 공격과 수비에 젊은 에너지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전북현대는 N팀 시스템을 통해 신인 선수들이 성인 무대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A팀으로 승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현대는 “구단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유스 출신들과 외부 우수 자원들이 조화를 이뤄 팀의 미래가 더욱 밝아졌다”며 “팬 여러분께서도 전북의 새로운 주역이 될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영입 절차를 모두 마친 선수들은 구단 공식 훈련에 합류해 13일 인도네시아 발리로 동계전지 훈련을 떠났다.

/장정철 기자

“교육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 재충전하세요”

전북교육청, 교원치유 프로그램 23일까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기중 교육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교원들에게 치유와 회복,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방학 중 휴 프로그램'을 오는 23일까지 전북교육인권센터 및 도내 전문 치유기관에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학기 중 교육활동으로 누적된 교원의 피로와 정서적 소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8개 프로그램, 총 50회로 운영된

다. 참여 교원 수는 590여 명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공예테라피 △향기테라피 △원예테라피 △스포츠 등이 있다.

각 프로그램은 소규모 체형 중심으로 운영되며, 교원이 자신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돌아보고, 심리적 안정과 자기 효능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신체활동과 정서 치유 활동을 병행해 심신회복과 스트레스 완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방학 중 교원 맞춤형 치유와 회복, 그리고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에너지를 충전해 2026년 새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기중 교육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교원들에게 치유와 회복,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

전북현대모터스FC, 2026시즌 스페인 전지훈련 출발

최상의 기후·훈련 환경 스페인 마르베아서 팀 완성

전북현대모터스FC(단장 이도현)가 신임 정정용 감독과 함께 2026시즌 정상 수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전북현대는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전지훈련지인 스페인 마르베아로 출국, 담금질을 시작했다.

이번 전지훈련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선수단은 모든 일정을 마친 후 2월 14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훈련 장소인 스페인 남부의 마르베아는 겨울철에도 온화한 기후와 최상급 잔디 상태를 갖춰 최고의 환경을 갖춘 전지훈련지다.

전북현대는 이곳에서 체력 강화 훈련과 전술 훈련 등을 통해 새롭게 팀을 정비하고 유럽 등 다양한 클럽팀들과의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연습경기는 'SK 시그마 올로모우츠(SK sigma Olomouc/체코)'를 비롯해 '토론토 FC(Toronto FC/MLS)', 'FC 메탈리스트 하르키우(FC Metalist Kharkiv/우크라이나)' 등과 약 5경기를 치를 예정이다며 전력 보안 등을 고려해 별도의 경기 영상 공개는 없을 예정이다.

전북현대는 지난 2020년과 2023년도 시즌을 앞두고 스페인 마르베아에서 동계전지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전북현대의 미래인 N팀은 13일 인도네시아 발리로 동계전지훈련을 떠났다.



전북현대모터스FC가 신임 정정용 감독과 함께 2026시즌 정상 수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났다.

/장정철 기자

겨울철 야외활동 복병 “동상”

추위에 노출된 시간보다 노출상태가 중요

· 추운데 오래 노출되었을 때보다는 피부의 상태, 특히 젖은 상태 또는 꽉 끼는 장갑으로 추위에 노출될 때 동상 위험

동상 예방



추운 환경에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꽉 끼거나 젖은 옷은 피해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자주 움직여 **몸을 따뜻하게**



얼굴이나 귀의 동상은 따뜻하게 **데운 찜찜팩 또는 수건으로 마사지**

동상 조치

·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

·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

1. 증상이 느껴지면 최대한 빨리 따뜻한 곳으로 이동한 후 젖은 의복을 벗고 **동상 부위를 따뜻하게 보호**
2. 38~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40분간 담그는 것이 가장 효과적

· 환자를 빨리 치료하겠다고 **전기담요나 난로** 등에 직접 노출시키거나, **술이나 담배** 등을 주어서는 안됨

정읍시,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사업 신청접수

정읍시가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영농 확산에 나섰다. 시는 품목별로 최적화된 데이터를 농가에 적용하는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기후 변화 대응 과학영농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후속·확대 사업으로,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각 품목에 맞는 최적의 생육 환경 데이터를 실제 영농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규모는 총 10개소이며, 국비와 시비 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환경·생육 제어기기와 정밀 센서 등을 지원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품목별 생산성 향상 모델을 농가에 도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 농업인과 주산지 중심 연구회, 공동선별회 등이다. 시는 재배 환경 및 생육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고, 습득한 정보를 공유해 지역 농업 기술 향상에 기여할 의지가 강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의 미래 ‘정책 경진대회’ 청소년 10팀·40여 명 참여

익산시가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13일 교육발전특구 고등산학관 커큘링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청소년 정책 제안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익산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경진대회 최종 발표에는 청소년 10팀, 40여 명이 참여해 ‘살기 좋은 익산’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청소년 정책 제안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청소년들이 지역의 교육과 일자리(창업) 분야를 직접 고민하고 이를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다.

교육 과정에서 윤찬영 전주대학교 초빙 교수의 ‘익산에서 산다는 것’, 한승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의 ‘로컬콘텐츠 학 개론’ 등 강의가 진행돼 청소년들의 정책적 시야를 넓혔다. 이어 로컬콘텐츠, 문화, 도시재생, 정책·행정 분야 전문가 4명이 멘토로 참여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고도화했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는 이날 최종 발표와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3개 팀이 선정됐다. 심사는 자원 활용 가능성, 정책 효과성, 제안의 참신성, 발표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수상팀에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으로 떠나는 해외 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자들은 일본의 지역특화산업과 도시재생, 교육혁신 사례를 탐방하며 국제적 시야와 정책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유)강한크레인, 군산 나운2동 착한가게 신규 가입

군산시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는 착한가게에 신규 가입한 (유)강한크레인(대표 강신재)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현판을 전달받은 강신재 대표는 “나운2동에 많은 착한가게와 착한가정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 적은 금액이지만 착한가게에 가입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남귀우 나운2동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섰듯 착한가게 가입을 해주신 강신재 대표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꾸준히 기부된 성금을 통해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문화유산 41필지 지목 현실화

농지·임야 관리 부지 ‘사적지’로 변경 행정 불일치 해소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무성서원을 비롯해 정읍을 대표하는 주요 문화유산들이 마침내 제격에 맞는 지목을 갖게 됐다.

정읍시는 과거 행정 미비로 인해 농지나 임야로 관리되던 41필지의 문화유산 부지를 조사해 ‘사적지’로 변경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무성서원(사적 제166호)과 은선리 삼층석탑(보물 제167호), 피향정(보물 제289호), 천국사지 칠층석탑(보물 제309호) 등은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대장 등 행정 공부상에는 전(밭), 답(논), 임야, 종교용지 등으로 표기돼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았다.

시는 유적지의 위상에 걸맞은 ‘사적지’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통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문화유산 지정 관보와 고시문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민원지적과, 동학유산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 간 긴밀한 업무 협의를 진행해 과거 행정 절차상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 끝에 사유지인 무성서원 부지 15필지(6946㎡)는 소유자인 유림 측의 신청을 받아 지난해 9월 지목 변경을 마쳤다.

또한 국·공유지인 피향정 등 3개소 부지 26필지(9473㎡)는 담당 부서인 동학유산과의 신청으로 지난해 11월에

‘사적지’로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이번 조치로 시는 문화재 구역 내 불일치하던 지목을 ‘사적지’로 명확히 함으로써, 관내 문화유산의 품격을 높이고 역사적 가치를 행정적으로도 온전히 인정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민관이 협력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해결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만드는 적극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아기통장 개설 시 10만 원 지원

익산시-원광새마을금고 ‘출생축하 지원사업’ 협약

익산시가 원광새마을금고와 손잡고 출산을 축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익산시는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원광새마을금고와 ‘출생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원광새마을금고는 올해 익산시에서 출생한 아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축하금 10만 원을 지원하고,

시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익산에서 첫째 아이를 낳은 가정은 익산시 출산장려금 100만 원과 첫만남지원금 200만 원을 포함해 총 3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익산시 출산장려금은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을 지원하고, 첫만남지원금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한다.

출생축하 아기통장 발급대상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익산에서 출생신고를 한 자녀를 둔 익산시민이다.

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원광새마을금고 본점(영동동)과 역전지점, 원대병원지점, 모현지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광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금융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사업이 출산 가정에 작은 응원이 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의회, 2026년도 의정활동 시작

제309회 임시회 개최 공공교통 대전환 등 촉구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13일 제309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를 시작했다.

먼저, 박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 모두에게 희망과 번영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정읍시의회 의원 모두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국립공원과 지자체 상생발전을 위한 정읍시의 과제’를 통해 내장호 주변 종합 발전계획에 인근 주민을 위한 사책이 반영될 것을 촉구했고, 이상길 의원은 ‘교통기본권 시범도시 선도를 통한 공공교통 대전환 촉구’를 통해 교통을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교통체

계로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이학수 정읍시장의 2026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시정 보고를 끝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쳤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가 있으며,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 청년뜰 창업센터, 지난해 매출 성과 ↑

약7억6천만원 직접매출 지속가능한매출구조 형성

군산시 청년뜰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가 2025년 매출·판로·지식재산·지원금 연계 등 시장 중심의 핵심 성과 지표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거두며 지역 창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입증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실제 시장 거래 기반의 매출 구조 형성으로 봤을 때 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약 7.6억 원의 직접 매출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지원을 받은 다수 기업의 월 매출이 이전 대비 60~70% 이상 상승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단순 수치를 넘어 이커머스과 디지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온라인 판매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매출 구조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형 유통망 진출 및 전방위 판로 개척 센터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방위적 판로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

롯데몰 군산점과 연계한 팝업 부스 행사에서 성과를 낸 기업들이 정식 입점 제안을 받거나 단독 팝업 행사를 연 장 운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내 외 박람회 참가를 통해 실제 라이선스 계약과 유통망 확보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랐다.

지식재산권 확보와 미래 성장 동력 마련 창업기업의 브랜드 보호와 중장기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지식재산권(IP) 출원 사업도 결실을 맺었다.

시는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 총 34건의 출원 및 등록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이 향후 투자 유치와 판로 확대 과정

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을 축적하도록 도왔다.

진행됐던 교육 프로그램 역시 후속 성장을 돕는 ‘창업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실제로 2025년 수료생 중 3명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공모사업에 연계 선정돼, 센터의 교육이 외부 자금 확보와 사업 고도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장 경로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 창출부터 자금 연계까지 이어지는 구조화된 창업 지원 모델을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라며, “2026년에도 청년과 창업가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군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4.58% 혜택

2월 2일까지 신청 가능

군산시가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2026년 1월에 연납할 경우, 4.5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시점 이후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의 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돼 할인이 줄어든다. 따라서 1월에 신청해야 최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지만, 공제 혜택이 취소돼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를 해야 한다.

신청은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do), 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 앱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ARS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단,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연납의 경우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서정석 군산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 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지만, 공제 혜택이 취소돼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먹으러 오는 도시’ 기반 다졌다

익산시가 지역 대표 음식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식으로 관광경제를 이끄는 도시’ 기반을 본격 다져가고 있다.

시는 13일 ‘외식업소 경영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광보건대학교 라이즈(RISE)사업단, (사)한국외식장업교육원과 함께 추진한 이번 사업은 대표 맛집들의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 변화와 매출 증대를 이끄는 데 중점을 뒀다.

대상은 대물림 맛집과 향토음식점 등 지역 인종 음식점 6개소다.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 달간 외식 경영, 위생, 서비스, 메뉴, 마케팅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문가들의 집중 현장 컨설팅이 진행됐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축산 악취 저감 시설 설치비 50% 지원

정읍시가 고질적인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시비 8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를 재원으로 ‘2026년도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인 양돈농가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공인인종 기관의 현장 실측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시설들로 한정했다. 여기에는 액비(액체비료)순환시스템(저장조 포함),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미생물배양기, OH라디칼, 악취저감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시는 선정된 농가에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0일 까지 농장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

는 냄새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에는 민원 걱정 없는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시설 지원 외에도 다각적인 환경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축산 냄새 중점 관리 농가 16곳을 선정해 악취저감제 구입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했다.

더불어 축사 바닥의 수분 조절에 필요한 톱밥과 왕겨 구입비 30%를 지원하고, 매주 1회 ‘축산환경·소독의 날’을 운영한다. 이학수 시장은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와 악취 저감은 축산업이 주민과 공존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1기 수강생 모집

군산시평생학습관은 ‘2026년 정규 1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규 프로그램은 시민의 평생 학습 참여 기회 확대와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2월 2일부터 4월 25일 까지 총 12주 과정이며, 시는 56개 강좌 834명의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특히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로 9개 강좌(스컬학자와 함께하는 인생애기 출판 및 등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이 향후 투자 유치와 판로 확대 과정

패턴 제작 △어린이 생활 가야금 등)를 신설했다.

시는 이번 편성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강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2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ill.gunsan.go.kr)에서 선착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산시평생학습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3만원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제-전북도시가스, 도시가스 공급 협약

2026~2028년까지 75억원 투입 금구면 공급배관 사업 추진

김제시는 전북도시가스 주식회사(대표 김홍식)와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금구면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금구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도시가스 공급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그간 시는 금구면 지역의 공동주택 신축으로 증가하는 도시가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요조사를 통해 대다수 주민의 희망사항을 확인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전북도시가스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에 걸쳐 75억원을 투입, 12.4km의 도



김제시는 전북도시가스 주식회사와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금구면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가스 공급배관을 구축할 계획으로, 완료되면 2028년 이후부터 서희스타힐스 등 공동주택을 포함해 금구리와 서도리 등 면소재지 일원 1,700세대에 공급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연료비 부담 절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김홍식 전북도시가스 대표도 “금구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안전한 배관설치를 최

우선으로 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편리한 에너지 공급에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동부권 중심지인 금구면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할 수 있게 돼 기쁘며, 주민 정주여건 향상과 쾌적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산후 조리비 대폭 확대 지원

최대 130만원까지...지난해 출산산모소급 신청가능

부안군보건소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 산후 조리비 지원을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산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2024년부터 시행됐으며 분만 후 1년 이내 산모를 대

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2024년에는 75명에게 3812만원, 2025년에는 118명에게 총 6043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거주하는 산모이며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과 산후조리 전 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후 관련 영수증을 지참해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25년 출산 산모의 경우 제도 확대 시행에 맞춰 기존에 50만원을 지원받은 산모라면 잔여 금액 최대 80만원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 2025년 1월 출산 산모는 오는 31일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산모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확대된 지원 금액의 차액까지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지원 조건 문의는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하면 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나눔대화 대장정 시작

고창읍 시작으로 14개 읍·면 순회 릴레이

심덕섭 고창군수가 오늘 오후 고창읍을 시작으로 ‘군민행복 활력고창 나눔대화’ 대장정에 나섰다.

심덕섭 군수는 13일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26 군민행복 활력고창 나눔대화’를 열었다.

심 군수는 이번 나눔대화를 통해 올해 슬로건인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의 의미를 설명하고, 4대 추진방향(서민경제 활성화, 미래첨단산업 육성, 세계유산의 특별한 활용,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군민과 함께 공유한다.

읍·면 방문인 만큼 역점사업들의 현안과제에 대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할 방침이다.

14개 읍·면 순회 나눔대화에선 군정 계획 보고, 활력 군민상 시상, 군정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남녀노소 주민 누구나 군정 발전방향과 정책제시, 행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고, 심 군수가 직접 답변에 나섰다.

실제 고창읍에선 △티미널도시재생

사업 추진상황 △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일정 △고창청 지방하천 정비사업 올해 일정 설명 등이 상세하게 이뤄졌다.

심 군수는 정책 추진 절차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군민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약속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이 가진 문화·역사·예술·관광 등 매력 자산을 활용에 산업화하고,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모이는 활력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2026년에도 인구 증가세 이어간다

정주·생활인구 연계 인구정책 본격 전환

김제시는 2025년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81,676명으로, 전년 대비 1,041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인구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2026년을 인구정책의 전환기로 규정하고,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속에서도 인구 이탈을 최소화하고, 체류·관계인구를 정주로 연결하는 정책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해 출생부터 결혼·정착까지 전 생애 과정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출산·양육 단계에서는 △출산장려금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통해 초기 양

육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 복스타 사업으로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학령기에는 △청소년드림카드 △김제사랑장학금 및 격려금 확대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전임장려금 △취업 청년 정착수당 등을 연계해, 유입 이후에도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정착 지원을 집중한다.

또한 올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출산·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에 시비를 매칭해 참여함으로써,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던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만 18~39세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본인 출산 시 90만 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기 소득 공백을 완

화하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경우 5백만 원을 지원하는 ‘3자녀 이상 패밀리카 지원사업’을 도입해 다자녀 가정의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2026년 인구 증가세 유지를 위한 또 하나의 핵심 전략으로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김제형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 도입 △관광의 시민 대상 특별여행 캐시백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방문·체류·관계 형성·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인구 흐름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2025년 인구 1,041명 증가는 김제의 도시 체질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다양한 인구정책을 통해 2026년에도 인구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출장비 지급 규정 악의적 곡해”

형령·배임 주장, 근거 없어

고창군이 최근 일부 언론의 ‘출장비 부당 지급’ 보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악의적으로 곡해한 근거 없는 의혹이다”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및 관련 지침상 경미한 사항에 대한 출장결과는 구두 보고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규정상 모든 출장에 서면 결과보고서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

군 관계자는 “출장보고서는 정상

적으로 결재를 받았고, 출장비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됐다”며 “결과보고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형령이나 배임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관련 규정을 곡해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형령·배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보도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다”라며 “군은 앞으로 도 규정에 따른 투명한 예산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 기본구상 검토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

김제시는 13일,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약 36,000㎡규모의 공동묘지 재개발로 자연장지와 봉안당 시설을 갖추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명품 추모공원 조성을 목표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최근 화장 수요 증가에 따라 봉안시설의 조기 만장이 예상됨에 따

라, 기존 계획했던 15,000기 수용 규모에서 20,000기로 확대 조정해 중·장기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보완했다.

공설추모공원 조성으로 그동안 타지자체의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시민들이 고향에서 존엄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장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추모공원을 조성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김제시에 적합한 선진 장사문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고독사 고위험군 맞춤형서비스 본격화

고창군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독사 고위험군 전수조사 결과, 모두 119명이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확인됐다.

전수조사는 1인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복지이장 등이 참여해 실제 거주 여부, 생활실태, 건강상태, 사회제 고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119명에 대

해선 개별 욕구와 위험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대상자로 분류했다. 또한 △AI 기반 안부확인 서비스 △정기 안부확인 △우유·생활지원 꾸러미 지원 등 통합적 지원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위험군으로 조사된 대상자 한 분 한 분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과 민·관 협력을 통해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노후주택 정비

부안군은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주택 집수리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대상으로 지붕, 외벽, 창호, 담장 등의 개선을 지원하고 빈집을 대상으로는 철거비를 지원한다.

군은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집수리 61호, 빈집 철거 4호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집수리 2호, 빈집 철거 1호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해 갈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부안군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에는 국토교통부의 집수리 사업 지원 가이드라인(2025년 6월 개정)에 따라 건축사 등 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인 집수리 점검단을 구성해 사업의 공정성과 품질을 확보할 방침이다.

집수리 점검단은 집수리 신청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및 구조 안전성 점검, 집수리 필요성 및 시급성 판단, 견적서 및 공사 범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점검단 운영을 통해 사업의 공정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2026년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사전 안전교육

고창군이 13일 고창경찰서와 합동으로 피해방지단 35명의 수렵인을 대상으로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총기 사용안전수칙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안전 수칙, 활동시 애로사항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눴다.

피해방지단은 오는 19일부터 12월말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들은 유해야생동물로인한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시 구제활동,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멧돼지 포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지않고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며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포획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창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작년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실적은 총 2459마리로 멧돼지 129마리, 고라니 741마리, 까치 1589마리 등을 포획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백산면,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교육 실시

부안군 백산면(면장 박선이)은 지난 12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70여명을 대상으로 발대식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협약서 작성 및 노인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참여자 활동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이 진행됐다.

백산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며,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관내 7개 구역에서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선이 백산면장은 “노인일자리가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재전부안군향우회, 부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백만원 기부

부안군은 지난 10일 알래스카컨벤션에서 열린 재전부안군향우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향우회원 일동이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신임 김동창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향우회원들이 고향 부안을 응원하는 마음을 모아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서는 향우회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고향사랑기부금에의 취지에 공감하고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동창 신임 회장은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고향에 대한 마음만큼은 늘 함께하고 있다”며 “향우회원들의 정성이 부안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향우회 이취임식이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마음을 모아주시는 재전부안군향우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지역 활성화 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담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군은 향우회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 네트워크와의 연대를 통해 기부 참여 확산에 힘쓰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완주군, 주거안전망 강화 종합계획 가동

주거취약 긴급주거·임대지원 확대 청년·신혼 월세·전세보증료 지원 그린리모델링·장애인 주택개조

완주군이 2026년 주거취약계층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6년 주거복지종합 추진계획'을 본격 가동한다.

13일 완주군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급여 지급 ▲공공임대주택 지원 ▲신혼부부·청년 주거 안정 지원 ▲노후주택 주거환경개선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임대급여와 자가 가구 수선유지비를 지원하고,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 분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계해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비닐하우스, 반지하,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주거지원과 이사비를 지원해 주거위기 해소에 나선다.

신혼부부·청년 주거 안정 분야에서

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거취약계층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지방세 개편 맞춰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빈집 철거 재산세 50% 경감 생애최초·출산·양육 혜택 유지

순창군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에 발맞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과 더불어 무주택자,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채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를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를 경감하고, 3년 이내 신축할 경우 취득

세 25%(최대 75만원)를 감면한다. 군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유지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서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대로 취득할 경우 최대 200만원, 전용면적이 60㎡ 이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은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한다.

이외에도, 출산·양육 가구에 대한 혜택도 연장되어 1세대 1주택자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아울러 군은 세무상담 비용 부담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주민들을 위해 제6기 마을세무사 2명을 위촉하고 내년 12월까지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맞춤형 패키지'로 관광객 유치 지원 나서

개별·단체 숙박·체험·버스비 지원 여행사·엔론 대상 연중 팸투어

순창군이 올해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군은 숙박비와 체험비 지원을 비롯해 단체관광객 버스비 지원, 팸투어 운영 등 여행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사업은 ▲개별 관광객 숙박 및 체험비 지원 ▲단체관광객 버스비 지원 ▲여행사와 엔론인 대상 팸투어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먼저, 개별 관광객 숙박 및 체험비 지원사업은 2인 이상 10인 미만 관광객이 순창을 방문해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하고 주요 관광지 1곳을 방문하면, 1인당 숙박비 최대 1만 원, 논촌 체험시 체험비 5000 원(최대 1만 원)가 지원된다. 단, 군 운영 체험시설이나 캠핑·차박은 제외된다.

단체관광객 버스비 지원사업은 20인



순창군은 올해 숙박비와 체험비 지원, 단체관광객 버스비 지원, 팸투어 운영 등 여행 전반 맞춤형 지원으로 관광 활성화를 모색한다.

<사진=순창군>

이상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버스 1대당 탑승 인원예 따라 20인 이상 일 경우 30만원, 30인 이상일 경우 40만원을 지원한다. 당일여행은 유·무로 관광지 각 1곳과 식사 1회를 이용해야 하며, 숙박 여행의 경우 관광지 3곳과 식사 2회를 이용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여행사나 엔론·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Fam Tour)'도

연중 운영된다. 신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콘텐츠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참가자에게는 체험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이 지원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민간 숙박·체험시설 연계를 강화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광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상관·동상 '둘레길' 속도…힐링·생태관광 점진

13일 연초방문서 지역주민 소통 수변 관광자원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군이 연초방문으로 13일 상관면과 동상면을 차례로 방문해 2026년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별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관면에서는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전주시 소유로 오랫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상관저수지와 정수장 일원을 자연과 문화, 휴식이 공존하는 힐링 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의 하나로 추

진되고 있다.

총사업비 19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수변테크길 조성 및 힐링공원 조성 등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주민들은 안전하고 연속성 있는 둘레길 조성, 자연 친화적인 힐링공원 조성, 환경 훼손 최소화 및 사후 관리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동상면에서는 '대아·동상지구 둘레길 조성사업'을 비롯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동상면은 만경강 발원섬과 대아·동상저수지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군은 기존 관광자원개발

사업과 연계해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관광 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둘레길 조성사업은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국·도비 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저수지 주변 수변 공간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며,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군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동상면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상관면과 동상면이 가진 자연과 자원을 살려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장학숙, 2026년도 신규입사생 모집

총 34명 모집 26일부터 접수 4억4천 투입 노후 시설 개선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이사장 최경식)에서 운영하는 남원장학숙이 2026년도 신규입사생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34명이며, 신청 자격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이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또는 학생 본인 중 한 명 이상이 남원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방문 접수(남원시청 교육체육과 또는 서울 남원장학숙), 이메일(zhieum12@korea.kr), 등기우편을 통

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남원장학숙은 올해 대대적인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입사생들의 생활 환경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총 4억 4,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숙사실 도배·장판 및 옷장 교체 등 생활공간 환경 개선 ▲독서실 노후 시설 개선 ▲학생 휴식과 교류를 위한 북카페 조성 ▲옥상 방수 공사 및 건물 외벽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춘향장학재단 관계자는 "신규입사생 모집과 함께 시설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지역 인재들이 타지에서도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대설·한파 예방 캠페인

삼례시장서 전주시상청과 협업 실생활 활용 안전수칙 정보 전달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이 13일 삼례시장에서 전주시상청과 협업해 겨울철 대설·한파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며 군민과 야외근로자 등 겨울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대설·한파 대비 행동 요령과 한파 시 안전수칙,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등 생활 속 안전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은 국민 행동요령 전단지

리플릿을 배포하며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방한용품 등을 함께 전달하는 등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은 평소 재난취약지역 점검과 예방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 집중호우와 폭염 시에도 현장 안전 점검과 응급복구 지원 등 다양한 재난 대응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 안전망 구축에 기여해 왔다.

충중한 재난안전과는 "대설과 한파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상 재난이지만, 작은 실천으로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 성평등가족부 장관상 수상

2025 종합평가서 만점 '최우수'

(사)삼동청소년회사가 운영하는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이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종합점수 100점 만점으로 '최우수시설'을 획득하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성평등가족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이번 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2년마다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운영 및 관리, 청소년 이용 및 참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인

사 및 조직, 시설안전 및 환경 등 수련시설 운영 전반을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됐다.

서대현 관장은 "이러한 우수한 성과는 남원시의 지원과 지지, 지역사회의 협력과 관심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은 특성화 사업인 캠프프로그램과 청소년광한루원해설사를 양성하는 등 청소년의 주도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건설기계 면허 적성검사 기한 내 이행 촉구 "불이익 주의"

남원시는 건설기계 조종사가 면허 적성검사를 기한 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 다음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남원시 관내 건설기계 면허 소지자 8,424명 중, 올해 적성검사 대상자는 293명이다. 기한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 30일 이내 5만원, 31일부터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이 가산돼 최고금액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검사 미이행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적성검사는 주소지 관할 등록기관에 신체검사서, 기존 조종사면허증, 사진 1매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소지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체검사서는 제1종 운전면허 수준의 검사 결과가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해당 검진 결과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기록만 인정된다. 적성검사에 합격하면 새 면허증이 발급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을 놓쳐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는 반드시 검사 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설봉환(주)대한에스엠피 대표 순창군 고향사랑 500만원 기탁

순창군은 지난 12일 (주)대한에스엠피 설봉환 대표가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순창군 금과면 출신으로 전기공사와 태양광 발전 설치 공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주)대한에스엠피를 운영중인 설봉환 대표는 순창군에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고, 기부에 따른 답례품도 재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설봉환 대표는 "바람은 맑아도 타지에 있지만 마음만은 항상 고향인 순창과 함께하고 있다"며, "순창의 미래를 열어갈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겨울방학 맞이 초등학생 음악줄넘기 운영

완주군 행복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월부터 2월까지 음악줄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음악에 맞춰 줄넘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형 운동 프로그램으로, 성장기 아동의 기초체력 향상과 건강한 신체활동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 반복 운동에서 벗어나 리듬과 동작을 결합한 음악줄넘기를 통해 아동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고, 친구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안전하게 진행되며, 줄넘기 기본 동작부터 음악에 맞춘 응용 동작까지 단계적으로 구성해 줄넘기가 처음인 아동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명란 건강증진과장은 "겨울철 실외 활동이 줄어드는 시기에 아이들이 즐겁게 움직이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아동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천문과학관 '낮밤 별보기' 체류형 콘텐츠 강화

겨울방학 '주·야간 패키지' 운영 별자리·태양 관측 연계형 체험

남원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겨울방학 기간 동안 남원시천문과학관 '주·야간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주·야간 패키지 프로그램은 주간에 천문과학관을 방문한 관람객에게는 당일 야간관측을, 야간관측에 참여한 관람객에게는 익일 주간관측을 무료로 제공하는 연계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유료 발권 관람객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주·야간 패키지 프로그램은 하루 이상 머물며 낮과 밤의 전문관측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체류형 콘텐츠라는 점이 특징이다.

남원시천문과학관은 해시계, 자력루 등 14종의 과학 체험물을 활용한 참여



남원시는 내달 28일까지 겨울방학 기간 동안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남원시천문과학관 주·야간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남원시>

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리모델링을 마친 호남권 유일의 4K 풀돌 4D 영상관에서는 박진감 넘치는 영상과 함께 우주·과학 이야기를 생생하게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겨울철에도 실내의 체험을 균형 있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해 날씨와 관계없

이 안정적인 관람이 가능하다. 특히 겨울밤의 맑은 하늘을 활용한 별자리 관측과 주간 태양관측을 연계한 프로그램 구성은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가족 관람객에게도 색다른 과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화산면 새마을부녀연합회, 사랑의 떡국떡 나눔

완주군 화산면 새마을부녀연합회가 최근 화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떡국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나눔은 마을 어르신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마련한 행사로, 새마을부녀연합회는 직접 마련한 떡국떡 180kg을 경로당 및 홀몸 어르신 등 관내 취약계층 90여 세대에 전달했다.

강은아 부녀회장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해 떡국떡을 맛있게 드시고 추운 겨울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마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임미정 화산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봉사활동을 해주신 부녀회장님들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하여 나눔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진안군 정상식 진안읍장, 장학금 100만원 기부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진안군 정상식 진안읍장이 지난 연말 받은 대통령 표창 수상을 기념해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정상식 진안읍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일군 성과를 나눔으로 보답하고 싶었다"라며,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이웃의 자녀들이 꿈을 펼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전춘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역 행정을 이끌며 주민 복지 증진에 힘쓰는 가운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선뜻 마음을 내어 준 정상식 읍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이러한 따뜻한 기탁의 마음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인재 육성의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진안사랑장학재단은 기탁금을 활용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다양한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며 관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굿네이버스, 정읍 저소득 아동에 장학금·난방용품 전달

굿네이버스 전북지부, 정읍지역후원회공동 지원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지부장 김윤주)가 지난 12일 굿네이버스 정읍지역후원회(회장 이순자)와 손잡고 정읍 지역 내 저소득 가정 미취학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희망 장학금과 난방용품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경제적인 어려움 탓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생활 환경에 놓인 미취학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대상 아동들에게는 학습과 양육비로 활용 가능한 희망장학금을

비롯해, 다가오는 추위를 대비할 수 있는 난방용품이 함께 전달됐다.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와 정읍지역후원회는 평소에도 아동의 권리 옹호와 복지 향상을 목표로 다채로운 후원과 나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이번 물품·장학금 전달 또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의 하나로 추진돼 그 의미를 더했다.

이순자 회장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걱정 없이 쓰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함께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정읍지역후원회는 지역의 미래인 아동들



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숲정신건강의학과,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정신건강 전문 의료기관으로서 따뜻한 나눔으로 실천

군산시는 군산숲정신건강의학과(원장 김호선)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는 의미로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산숲정신건강의학과는 군산시 조촌동에 소재한 정신건강의학과



김호선 원장

제공하고 있다. 주요 진료 분야는 정신건강 전반을 비롯해 스트레스 관리, 집중력

저하·노인 정신건강 클리닉 등으로, 일상 속 마음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있다.

김호선 원장은 "진료 현장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마음의 어려움을 마주하며,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느끼고 있다"라며 "이번 나눔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

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데 더해, 따뜻한 나눔까지 실천하신 군산숲정신건강의학과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투명하고 소중하게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제읍지면 어울림봉사회, 용지중학교에 장학금 기탁

김제시 읍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어울림봉사회가 지난 12일, 읍지중학교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어울림봉사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이어온 봉사활동과 나눔 실천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학업에 성실히 임하는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학업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준삼 어울림봉사회장은 "지역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울림봉사회는 매년 지역사회를 위한 자발적인 봉사과 나눔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동심어린이집 원아들, 2026년 백만천사 1호 나눔 활동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13일 2026년 새해 백만천사 기부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2026년 백만천사 1호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올해 백만천사 1호의 주인공은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동심어린이집(원장 민덕화)의 원아들로, 이날 전주시 취약층을 위해 기부금 120만 원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전달식에서 동심어린이집 원아 120명은 지난해 동전주주체국 FC

동아리로부터 선물 받은 저금통에 직접 동전을 모아 마련한 기부금을 전주시복지재단에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실천했다.

동심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부 활동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며 아이들이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작은 나눔이 큰 희망으로 이어진다'는 백만천사 캠페인의 취지와 맞닿아있다.

/정혜민 기자



남원 산내면 노인회, 취약계층에 160만원 전달

남원시는 지난 12일, 남원시 산내면 노인회에서 희망2026 나눔캠페인을 맞아 160여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성금 전달식은 남원시장실에서 열렸으며, 박준웅 회장을 비롯한 노인회 임원 4명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지난 9일, 산내면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에서 노인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남원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돼달라는 회원들의 뜻이 담겨있다.

박준웅 산내면 노인회장은 "회원들이 모은 작은 정성이지만 마음을 모아 마련한 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노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께서 앞장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기부해 주신 성금은 꼭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돼 따뜻한 남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익산 현대장미슈퍼, 저소득층 가구에 500만원 기탁

익산시는 13일 '현대장미슈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받았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원 대표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가전제품 화재예방 을 위한 자기관리 방법

제품관리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원코드를 빼주세요

연기나, 타는 냄새가 날 경우
전원코드를 빼고 해당 업체로
문의하세요

전원코드가 손상된 경우 사용
하지 말고 해당 업체에 문의하세요

주변관리

멀티콘센트 사용시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전원을 꺼주세요

전원코드를 뺀 후
마른수건으로
먼지를 청소 해 주세요

전원코드를 끝까지
꽂아 주세요

〈一事一言〉



과거 성과 분석 통해 올핸 ‘실패의 반복’ 끊어내야

홍종학
전 중소벤처부 장관

2026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보름여가 지났다. 매년 이맘때면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자세를 바로잡는다. 헬스장 회원 권은 불타나게 팔리고,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는 자기계발서들이 점령한다. 새사람이 될 것 같은 설렘과 의욕이 교차하는 시기다. 그러나 냉정하게 되돌아보자. 우리가 세웠던 작년의 계획, 재작년의 다짐 중 지금껏 살아남은 것은 몇 개인가?

동기부여의 대가이자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Daniel Pink)는 인간이 가진 이 ‘작심삼일’의 구조적 결함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그는 우리가 매번 실패하는 이유가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방법의 부재’에 있다고 말한다. 막연한 희망 사항이 아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술로서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가 제안하는 2026년의 조언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넘어, 현재 위기론이 대두되는 한국의 투자 시장과 국가 정책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다니엘 핑크는 그의 저서 ‘후회의 재발견’을 통해 후회라는 감정이 가진 생산적인 힘을 강조한다. 그는 새해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두 가지 단계의 ‘후회 분석’을 제안한다. 첫째, ‘사후 분석(Post-mortem)’ :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후회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치부하고 잊으려 노력한다. 하지만 핑크는 후회를 정면으로 응시하라고 말한다.

내가 내린 잘못된 결정, 게으름

으로 놓친 기회들을 목록화하고 그 속에 담긴 교훈을 추출해 실천 계획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전 분석(Premortem)’ : 올해 연말에 내가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 것인가? 이는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기법이다.

“2026년 12월 31일, 나는 왜 또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자책하고 있을까?”를 미리 상정해 보는 것이다. 실패의 원인을 미리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그 함정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어 기제를 오늘날부터 구축하라는 뜻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단순히 ‘열심히 살라’는 격언보다 훨씬 실질적이다. 인간은 이득을 얻을 때보다 손실을 회피할 때 더 강력한 동기를 얻기 때문이다.

핑크의 조언을 가장 시급하게 받아들여야 할 곳은 역시적이게도 뜨겁게 달아오른 한국의 주식 시장이다. 2026년 초 한국 증시는 작년 저점 대비 100% 상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지표 상으로는 축적 분위기에야 마땅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지수는 두 배가 되었는데 내 계좌는 왜 마이너스인가?

이 현상의 핵심에는 ‘도박으로서의 투자’가 자리 잡고 있다. 많은 개인 투자자는 합리적 분석보다는 고위험·고수익을 노린 테마주와 중소형주에 몰입한다. 이는 투자가 아닌,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현실판이나 다름 없다. 누군가의 불운이 나의 행운

이 되길 바라는 제로섬 게임에 인생을 거는 것이다.

주거 안정 정책, 가계부채 해결책, 부동산 PF 부실 대응 역시 마찬가지다.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땀질식 처방은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 정책의 효과가 없었다면 그 방식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설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책임지지 않는 관료주의’는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예산의 기계적 집행에만 몰두한다.

새로운 정부나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화려한 청사진을 목격한다. ‘AI 선도국가’, ‘에너지 혁명’, ‘민생 안정’ 등 구호는 화려하지만 그 알맹이는 늘 비슷하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구조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할 때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되지만, 이미 집행된 예산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따지는 ‘결산’ 과정은 요식 행위로 치부한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정책의 실패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이 생략되니, 공무원들은 실패할 것이 뻔한 정책을 이름만 바꿔 다시 올린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말한 ‘같은 방식의 반복’이다. 과거를 평가하지 않는 조직은 미래를 설계할 자격이 없다. 2026년의 정부 예산이 2025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신규 사업 발굴’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철저한 평가’에 따른 폐기와 조정이다.

다니엘 핑크의 조언과 아인슈타인의 경고는 결국 하나의 지점을 향한다. “과거를 정직하게 대

면하라”는 것이다. 성실하지만 방법을 몰라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2026년은 ‘성실함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다. 내가 왜 작년에 좌절했는지, 어떤 유혹에 약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100권의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보다 유익하다.

투자자들에게는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가 아닌, 냉철한 전략가로 거듭나는 결단이 필요하다. 시장이 타오를 때일수록 자신의 투자 원칙을 점검하고, 감정에 휩쓸린 배팅을 멈추는 용기가 수익률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다. 왜 지난 정책들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대국민 보고서를 먼저 내놓아야 한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조직만이 새로운 시대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

2026년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올해는 정말 달랐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시작은 화려한 다짐이 아니라, 작년의 초라했던 실패를 가감 없이 기록하는 일기장의 첫 페이지가 될 것이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혁신이다.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링크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원스톱 방산클러스터, 전북이 최적지인 이유

전북자치도가 첨단복합소재를 기반으로 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에 도전장을 내민 것은 지역 산업의 지형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대한 선택이다. 향후 5년간 국비와 지방비 각 250억 원, 총 500억 원을 투입해 전주·완주·부안 일대에 원스톱 방산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방위산업에서 찾겠다는 분명한 선언으로 읽힌다.

이반 사업의 가장 큰 강점은 전북이 이미 첨단소재 분야에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KIST 전북분원 등 국내 유일의 첨단 소재·부품 산업 전문 방산시험장 비군을 통해 국방 신뢰성 평가와 복합재 시험, 기술성 평가까지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타 지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다. 소재 개발부터 실증, 인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원체계는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첨단 방산소재 독립전략’의 핵심 거점으로서 전북이 최적지임을 보여준다.

더욱이 도내에는 복합소재, 원자력, 탄소 분야 정부출연연구소와 방산 지정기업, 국방 연계기업,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들이 집적돼 있다. 탄소소재는 연소관과 연료구조물로, 이차전지와 수소연료전지는 군용 장비와 차량으로, 건설기계와 해양플랜트 기술은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와 특수임무 운송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 전북의 주력산업과 방위산업의 결합은 기술융합과 시장 확장의 시너지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무

엇보다 공모 선정 이후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관건이다. 시험·설계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인증과 조달 시장 진입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R&D와 기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지역 기업들이 시제품 제작과 수출시장 개척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 지원도 촘촘히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역시 병행돼야 한다. 첨단방산소재 산업은 고급 연구인력과 숙련 기술 인력이 핵심 자산인 만큼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간 연계 교육과 공동연구를 통해 인력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 연구자와 기술 인력이 전북에 머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방산클러스터가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뿌리내릴 때, 전북의 산업 구조는 한층 더 단단해질 것이다.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이다. 전북은 탄소, 수소, 이차전지 등 첨단소재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전북도가 이번 도전을 통해 첨단소재 국산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면 이는 전북만의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치밀한 준비와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이 계획이 차질 없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문화재열전

대모암 목조여래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물, 목조, 불상
-지정일 - 2017년 3월 31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순창군 장류로 197-22 (순창읍, 대모암)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윤리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시 010-88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정확한뉴스-스 바른 소식

전북의 곁에서 전북의 이야기를

전북타임스가 함께 합니다.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신문구독 282-9603 <https://www.jeonbuktimes.co.kr>

고창읍 고창경제관광의 핵심이 되다

국내 최고시설의 도서관·전통예술체험시설은 물론, 사계절 꽃피는 정원까지 단 도보 10분내 마련됐다. 오백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즈넉한 읍성과 함께 삶의 터전을 일궈온 고창군 고창읍이 고창경제관광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편집자주>

고창황윤석도서관

도보 10분내 황윤석도서관·꽃정원·보훈회관 전통예술체험마을 등 속속 준공 도보 15분내 어린이체육관·고인돌생태공원 등 건립으로 완벽한 문화생활기반 구축

고창군 고창읍의 랜드마크 '고창읍성'은 자연석을 그대로 짜 맞춰 축조했다. 자연미가 있어 아름답고 서로 맞물려 있어 견고하다. 성곽은 남쪽 장대봉(108m)에 좌청룡 우백호의 지세를 최대로 이용해 만들어졌다.

'전통예술체험마을' 도예·자수·염색 등 최고의 전통 예술체험

뒷마루에 앉아 성곽 너머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곳. 최근 고창읍성 서문인 진서루 아래 고풍스러운 한옥건물 여러 채가 들어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가장 큰 건물을 자랑하는 풍요재에선 전북무형문화재 이수장이 상주하며 전통자수 체험을 해볼 수 있다.

바늘과 색실로 무늬를 놓는 과정을 가까이서 보고 직접 따라해 볼 수 있다. 옆 공간에는 쪽빛이나 천연염료를 활용한 손수건·스카프 물들이기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비오는 날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의 운치와 달빛을 받은 한옥에서의 풍류체험은 감성을 자극하기 충분하다.

봄이면 흐드러지게 핀 벚꽃과 유채, 갯꽃로 인생샷 성지가 된 고창천, 장어구이·주꾸미 샤브샤브를 비롯해 맛집이 즐비한 고창전통시장과 도보로 단 5분 거리다. 이로써 단순히 스쳐 가는 관광지를 벗어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함께하는 체류형관광의 디딤돌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원도심·신도심 '신구 조화'... 과거·현재·미래 공존 '종묘' 모티브 고창황윤석도서관 개관

고창읍 주민들의 삶도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다. 고창읍 어디서든지 도보 10분내 명품 도서관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국내최고 시설에서 독서와 각종 문화강좌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3일 고창황윤석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도서관 설계는 유현준 건축가가 맡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유 건축가는 종묘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깊이를 재해석한 목구조로 설계했다. 기존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의 형태를 갖춰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100년 뒤에도 역사적 가치와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사랑받을 전망이다.

'사계절 꽃피는 고창' 고창꽃정원 최고의 데이트코스 멀리 나가지 않고도 아이와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집 주변 공원도 대폭 늘어났다. 대표적으로 노동저수지 아래 자리잡은 '고창꽃정원'은 아름다운 꽃과 조형물로 지역주민들의 나들이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모양성제 때에도 야간 경관조명으로 꽃정원 발길이 이어지면서 올해 이어질 꽃정원 본 프로젝트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고창군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농과 꽃정원이 연계한 6차 산업의 체험카페, 치유프로그램, 농특산물 판매 등의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식재된 식물을 활용해 놀이감 만들기, 정원 관련 그림책 읽고 식물 탐색하기 등 다양한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연 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할 계획이다.

고창군 보훈회관 개관, 보훈 문화 확산 가점
고창군 보훈회관은 총사업비 49억5000만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418㎡, 연면적 994.18㎡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는 보훈단체 사무실, 다목적실, 소회의실, 상담실, 자활사업단이 운영하는 카페 등이 조성돼 보훈가족은 물론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설 노후화와 단체 분산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통합된 지원 환경을 제공하고, 맞춤형 보훈 복지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집 앞에서 즐기는 수준급 체육시설 인프라
고창군은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과 엘리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곳곳에 수준급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고창 스포츠타운'에는 탁구, 배드민턴 전용구장, 파크골프장, 축구장, 야구장이 들어서며 각종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수요에 맞는 명실상부한 종합 스포츠타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창군은 도로 15분내 장애인생활밀착형 체육관과 장애인평생학습센터, 어린이체육관, 고인돌생태공원 사업을 통해 완벽한 문화생활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우리 자녀세대들이 도전해 볼만한 일자리가 있고, 자유로운 여가생활도 누리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의 목표다"며 "도시의 중심 고창읍의 신선한 변화를 통해 군민 행복과 활력 고창에 더 가까운 이정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